

법 어

염천(炎天)의 더위가 한창인 계절이지만 내설악 한 자락에 자리한 이곳 백담사 만해 마을에는 청량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백담계곡의 맑은 물은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고 솔숲을 휘감는 바람은 햇볕에 지친 행객(行客)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한줄기 바람이 무더위를 잠재우듯 세상을 바꾸는 모든 힘은 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 만해마을은 백 여 년 전 백담사로 출가한 만해스님이 불교경전과 근대사상 서적을 탐독하며 인류의 평화와 평등, 생명의 가치를 고뇌하던 곳입니다. 위대한 문학자이며 사상가이자 종교가였던 만해스님의 사상 체계가 이곳에서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크고 작은 실천을 통해 이 지구촌을 변화시켜가는 이 시대의 만해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 16회 만해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구촌공생회를 이끌고 계시는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에 1천기의 우물을 건립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교육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힘쓰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신 아키라씨는 5만 여 개의 지뢰를 제거하여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낸 분입니다.

르네 뒤퐁 신부님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사람들에게 평생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이며, 오타니 몬슈 고신 인도 우타라칸드 불교부장관은 티베트 난민을 위한 구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불교 사회운동가 이십니다.

멀리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 시장이신 커트 그리블 시장은 시를 종교평화를 현실에서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성 수상자이신 쿠웨이트의 시인 수아드 알 사바 님은 중동지역의 문인으로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과 인류평화를 시로 표현해온 아랍지역의 대표적 시인입니다. 문예부분의 또 다른 수상자인 김재홍 선생은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며 ‘만해학회’ 설립에 앞장섰고 ‘만해축전’을 입안해 성대한 문화제전으로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해대상 수상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세계 각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증장시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과 노력에 의해 평화와 인권, 생명을 향한 자비의 실천은 더욱 더 커졌고 인류의 행복도 진일보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각성과 용기 있는 실천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인류의 역사에 그 메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아리는 다른 사람의 각성과 실천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인류의 정신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오늘 만해대상을 수상하신 분들 가운데는 만해스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해라는 인물이 인류를 향해 외쳤던 메아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만해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새로운 메아리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